

## 우리가 나누는 라이트 모티프 (Leitmotif)

김민영

의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언제 끝날지 모를 방학이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기약 없는 방학,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떠나야 했다. 4년의 묵은 짐을 정리하며 부천에 계신 큰 고모 댁으로 갈 준비를 했다. 버리는 일이 유독 어려웠던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절대 버리지 않을 물건을 먼저 챙기기로 했다.

첫 번째는 파란색 방수 가방이었다. 2년 전 이맘때 유럽 여행의 중간쯤에 다른 나는 오스트리아 빈 기차역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고 있었다. 내 몸의 반을 넘는 29인치짜리 캐리어 위에 프랑스 지베르니에서 사 온 큼지막한 마 소재의 가방을 위태롭게 툭 올려놓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가방이 픽 떨어졌다. 기차 안에서 마시겠다고 객기부리며 산 맥주병이 그 안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횡단보도의 검은 아스팔트가 진해지고 있었다. 황급히 지베르니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허둥지둥 캐리어를 끌어봤지만 어림도 없었다.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배가 두툼하게 나온 파란 눈의 아저씨가 다가와 캐리어를 번쩍 들어다 인도로 옮겨 주었다. 그러곤 파란색 방수 가방을 내게 주었다.

“프롬 사우스 코리아? 스튜던트? 내가 장 볼 때 쓰는 가방인데 필요해 보이니 부담 갖지 말고 써요. 웰컴 투 빈, 굿 럭, 앤 엔조이 유어 유스(Youth).”

가장 난처했을 때 찾아온 선의라니. 심지어 방수 성능이 좋아 숙소까지 가는 길에 맥주는 단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깨끗이 씻어 햇빛에 말리고 고이 접어 한국으로 가져왔다. 기숙사 짐을 옮길 때 짐 가방으로 쓰면 아저씨가 빌어준 행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나의 ‘굿 럭’은 절대 새어 나가지 않고 매 학기는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번 고개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행운의 파란색 가방에 짐을 싣어 담았다.

행운 다음으로는 행복을 챙겼다. 바로 책장에 있던 분홍색 클립보드였는데, 병원 실습에서 회진을 따라 돌거나 환자를 문진할 때 가지고 다니는 의대생 필수재였다. 지금의 나에겐 쓸모가 없는 물건이었지만 책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모신 이유는 맨 뒤에 반듯이 끼워진 ‘행복’이라는 아직 발매되지 않은 노래 가사지 한 장 때문이었다. 작년 정신건강의학과 실습에서 환자분에게 받

은 선물이었다.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이분은 매일 아침 금단 증상으로 힘들어하다 오전 10시가 되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신청곡을 들으며 쉬는 수줍은 사람이었다. 나는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많이 아세요? OO 님 덕분에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러자 작곡가를 꿈꾸며 어느 대학 실용음악과에 진학했지만 꿈을 접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환자복 차림의 차분한 서른 중반 남성이 작곡 이야기를 할 때면 열 살 아이가 되어 목소리는 또랑또랑해지고 눈에선 별이 빛나는데, 그 빛이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그 빛이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처음 쓴 자작곡을 알려달라 매일 같이 즐겼다. 며칠 후 보라, 파랑, 초록의 색색깔 색연필로 절이 구분되어 쓰인 노래 가사지를 받았다.

‘그대의 자그만 숨결이 내 곁에 빛으로 다가와, 이 순간 행복한 눈물을 비춰요.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건, 내 안에 머물던 그 깊은 슬픔이, 그 미소 하나로 잊혀지는 걸.’

스무 살 첫사랑에 관한 노래였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다시 실용음악과를 다니던 빛나는 눈빛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다.

“OOO 님이 침대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시길래 여쭙보았더니, 실습 학생에게 줄 자작곡 가사라며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말했어요.”

나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보다 이제는 그 청년의 눈에서 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눈물 나게 고마웠다. 자랑하고 다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로 나는 클립보드의 맨 뒷장에 이 ‘행복’을 넣어 다녔다. 그 해 마지막으로 혈액종양내과 실습을 돌 때도, 여섯 달이 지나 안과를 돌 때도,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면 클립보드를 뒤집어 보았다. 한 자 한 자 꺾꺾 눌러 담아 쓰면서 꿈 많고 섬세한 청년으로 돌아갔을 그의 시간이 보였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그의 첫사랑이 그려졌고, 퇴원하고 나가면 작곡을 다시 시작해 볼 것이라 말하던 그가 어딘가에서 신시사이저로 자신이 좋아하는 단조 코드를 누르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다. 파란색 방수 가방이 나의 청춘을 보살피는 어른의 부적이었다면 이 가사지는 스무 살의 설렘과 슬픔을 떠올리며 다시 희망을 엿보는 또다른 부적이었다. 힘들 때마다 그 청년의 눈망울을 떠올렸고, 행복을 나누어 준 그를 위해 내가 아는 모든 신들에게 그가 조금 더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빌었다.

행복을 챙기다보니 내가 의지를 드린 일도 떠올랐다. 정신건강의학과 실습이

끝나기 며칠 전, 아홉 살 아이를 둔 장미를 좋아하는 여자분이 입원했다. 그녀는 5월 장미 축제를 다녀온 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며 미술 시간에 아이, 집,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색색의 장미를 정성스레 그리곤 하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스스로 가시에 찢려 피가 배어 나와도,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피로 꽃잎을 물들여 곳곳이 피어나는 장미 같았다. 이 우아한 여성에게 줄기를 덧대주고 싶었다. 학교에서 시험공부를 하다 짬을 내어 그녀와 닮은 장미를 찾아냈다. 아주 하얀 바탕에 연분홍 수채화 물감 한 방울을 수줍게 찍은 듯 겹꽃잎이 둥그렇게 말려있는, 어린 아이 주먹만 한 이 장미는 ‘첫사랑의 고백’이라는 꽃말을 가진 ‘엠마우드’였다. 병동에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이름과 꽃말, 생김새를 머리에 새겼다.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찾았다.

“OO 님을 닮은 장미가 있어요. ‘엠마우드’라고 연분홍색 뽀얀 장미인데, 꽃말이 ‘첫사랑의 고백’ 이래요. 퇴원하시면 꼭 찾아보세요.”

약기운으로 항상 졸려하던 얼굴이 병글어진 꽃봉오리처럼 화사해졌다.

“저랑 닮은 장미가 있어요? 세상에! 수첩에 적어갈래요. 여기서 꼭 나가서 찾아볼게요. 선생님 이름도 적어 가서 꽃 이름 알려주셨다고 기억할래요. 고마워요.”

알랭 드 보통은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서 상대방과 공유한 경험을 계속 떠올리며 친밀해지는 순간을 ‘라이트 모티프(Leitmotif)’라는 악극 용어에 빗댄다. 여기서는 초면인 점잖은 남자가 ‘나’의 연인에게 다가와 구겨진 쪽지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건이 라이트 모티프가 된다. ‘나’와 연인은 심심하면 ‘소금 좀 건네줘.’와 같은 허무맹랑한 내용의 쪽지를 서로에게 건네주며 그 때를 끊임없이 흥내 낸다. 여기서 핵심은, 라이트 모티프라는 온전히 두 사람의 극 속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만 반복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악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할지언정 둘 사이를 끈끈하게 붙여주는 접착제가 된다는 것이다. 연인들은 그것을 자꾸 꺼내어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소외됨으로써 사랑에 빠진다.

2년 전 빈에서 받았던 파란색 방수 가방이 나의 악극에서 행운이라는 라이트 모티프로 자리 잡은 것처럼 첫 자작곡과 엠마우드가 그들에게도 라이트 모티프가 되었으면 했다. 퇴원해서도 그들이 인생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습 마지막 날까지 계속 말했다.

“엠마우드, 꼭 나가서 찾아보셔야 해요. 엠마우드요.”

내가 물건 버리기를 유독 어려워 하는 이유를 찾았다.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나에게 온 순간, 라이트 모티프라는 사물 그 이상의 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짐을 챙길 때마다 나는 모든 의미들과 그 속에 담기게 된 과정들을 곱

짚어 본다. 그러다 보면 나와 라이트 모티프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떠오르며 그들의 악극 또한 무한한 선율로 흘러가고 있기를 두 손 모아 빌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무 것도 버릴 수 없다.